

정년연장·경기침체... 청년고용 '불뚝'

광주·전남 기업들 60세 정년 의무화에 신규채용 축소 움직임
금호타이어, 해마다 90여명 뽑았지만 올해는 계획도 못 세워
중소기업들 "인력 줄여들지 않아 신규채용 줄일 수 밖에 없어"

올해부터 정년 60세가 의무화되는 등 정년연장법 적용이 본격화하면서 노동현장이 유연해지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되지만 정작 청년 일자리 창출에는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 기업의 장기적인 경영악화와 겹치면서 청년 신규채용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관련기사 3·4면>

27일 지역 경제계와 관련단체에 따르면 올해부터 300인 이상 기업은 정년 60세가 의무화되고 내년에는 300인 미만으로 전면 확대할 예정인 가운데 대상 기업 절반 이상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못하고 있고 신규채용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에 처했다.

실제로 매년 이맘때쯤이면 신규 채용 공고를 내고 생산직 인력 확보에 나섰던 금호타이어가 올해는 아직까지 인력채용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 해마다 100명 안팎이 정년퇴직하면 여기에 맞춰 90명 정도 신규 인력을 뽑았지만 올해는 신규인력 채용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지난해 단체협약으로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 적용이 합의되면서 인력수급이 예전과 달라졌기 때문이다.

금호타이어는 정년연장을 고려해 올해부터 바로 이를 신규 인력 채용에 적용할 것인지를 고민 중이다. 회사 인력 수급이나 경영여건, 업계 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할 계획이지만 신규채용이 중단되거나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회사 관계자는 "해마다 신규인력을 채용했는데 올해는 아직 채용 여부를 결정

하지 못했다"며 "하반기에 일부 채용할 수도 있지만 정년연장이 본격 적용되는 내년에는 신규채용을 아예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금호타이어처럼 정년연장을 적용하면서 신규 채용을 어렵게 할 수 없게 줄이거나 아예 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등 광주의 대형 사업장의 경우 2~3년 전 정년연장에 맞춰 인력을 조정해 인력채용을 중단한 곳은 없지만 경영악화를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은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다.

장기근속 근로자들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 도입은 절감한 급여로 새로운 인력을 뽑자는 취지지만 정년연장이 전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 서로 상충되기 때문이다.

지역의 한 업체 관계자는 "정년이 연장되면 인력이 줄지 않기 때문에 인력 수요가 그만큼 덜해 신규채용을 줄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임금피크제 도입의 취지가 급여를 아껴 신규 인력을 창출한다는 것이어서 기업 입장에서는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지역 경제단체 관계자는 "정년연장이 기업의 신규채용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특히 임금피크제를 기업 이윤 추구만을 위해 악용하는 처사는 없어야 하고 정부와 기업, 노동계가 이러한 구시대적 임금체제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는데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현 고2 대학입시 73.7% 수시로 선발

대교협, 2018학년도 전형 계획

현재 고등학교 2학년들이 치르는 '2018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신입생 10명 중 7명 이상이 수시 모집으로 입학하게 된다.

<관련기사 7면>

수능시험 중심의 '정시'보다 '수시'가 대입의 대세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특히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를 주요 전형요소로 반영하는 '학생부 종합전형'(학종)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추세다. 학생들의 '학종 대비 사교육'의 과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흘러나온다. 영어 영역이 절대

평가로 전환되는 점도 눈여겨보아야 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대학입학전형위원회는 27일 전국 197개 4년제 대학의 '2018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4년제 대학들의 2018학년도 전체 모집 인원은 35만2325명으로 2017학년도보다 3420명 줄어든다. 수시모집으로 선발하는 인원은 25만9673명(모집 인원의 73.7%)으로 전년(24만8669명)보다 1만1004명 늘어난다. 정시모집 인원은 9만2652명(26.3%)으로 전년(10만7076명)보다 줄었다.

김지용기자 dok2000@kwangju.co.kr



이팝나무 아래...봄을 거닐어 봄 광주·전남지역에 봄비가 내린 27일 광주 시 북구 용봉동 전남대 교정에서 여대생들이 흐드러지게 꽃이 핀 이팝나무를 배경으로 우산을 쓴 채 걷고 있다. 이날 오후 5시 현재 광주에 내린 비의 양은 45.7mm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시·전남도·한전 협력 'SW융합클러스터' 선정

에너지 신산업 공모사업 유치
5년간 총 320억 사업비 투입

광주시와 전남도, 한국전력 등이 공동으로 협력해 에너지 신산업 관련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올해 소프트웨어(SW)융합클러스터 공모사업에서 '에너지 신산업 SW융합클러스터'로 신규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민선 6기 들어 시·도 상생협력의 또 하나의 성과물로 꼽힌다. SW융합클러스터 사업은 지역 전략산업과 소프트웨어의 융합을 통한 지역산업 경쟁력 제고와 신산업·신시장을 육성하고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사업에는 광주시와 전남도 뿐만 아니라 SW융합 R&D의 최대 수요자인 한국전력, 한전KDN, 한전 KPS, 기초전력연구원, 녹색에너지연구원을 비롯한 나주시가 참여하기로 했다.

"에너지와 SW융합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성장동력창출"이라는 비전 아래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SW융합 R&D

생태계 조성 ▲벤처창업·기업자생 생태계 조성 ▲지역특화형 SOS인력양성 ▲혁신형 네트워크 구축 등 4대 전략과제로 나뉘어 진행된다.

국비 95억원, 지방비 165억원, 민자 60억원 등 5년간 총 32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빛가람혁신도시와 광주 송암·첨단산단 지역을 SW융합클러스터로 육성하게 된다.

특히 한전 등 에너지 분야 대표적인 공공기관과 관련 연구기관이 대거 참여함에 따라 R&D기술개발과 사업화, 기업성장 지원, 인력양성, 혁신 네트워크 구축 등이 활발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또한, 정부의 에너지신산업 육성계획과 빛가람에너지밸리 조성 사업에도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2020년까지 광주·전남 ICT 기업의 매출액 14조5000억원 증가, 신규고용 창출 6416명, 창업 416개, 수출 116만불, 시제품 68건, 기술상용화 70건의 등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국민의당 원내대표 박지원·정책위의장 김성식

국민의당은 27일 박지원 의원을 20대 국회의 초대 원내대표로, 김성식 당선인을 정책위의장으로 합의했다.

<관련기사 3면>

국민의당은 이날 오전 경기도 양평에서 20대 국회의원 당선인 워크숍을 열어 이 같이 합의해나가는 것에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박 원내대표는 수락사에서 "19대 국회가 가장 비생산적인 국회로 낙인이 찍혔다. (20대 국회도) 만약 국민의당을 위한 당리당략적 목표로 가거나, 인철수 대표의 대관기도에 맞춰서 간다면 19대 국회와 똑같아진다"며 "어떤 경우에도 대한민국과 국민만 생각하고 그 길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때로는 더불어



박지원 의원

민중당과, 때로는 새누리당과 협력하면서 견제할 것"이라며 "대화와 타협, 협상에서 대한민국과 국민을 생각한다면 생산적 국회, 일하는 국회, 민생을 생각하는 국회로 거듭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당선인은 "국민의당은 국민의 변화와 개혁의 바람을 잘 받아서 정국을 짜르는, 이 시대 문제 해결의 처방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캐스팅보트를 넘어 정책을 주도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jkpark@kwangju.co.kr

서부농수산물시장 쪽파의 수난 ▶6면

그림편지-송필용의 금강산 ▶18면

박태환 "올림픽 가고싶다" ▶20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



디자인을 밝히다

The new generation CLS-Class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신성자동차(주) 광주 전시장
광주광역시 서구 삼부대로 1041(화정동) | Tel. 062-226-0001

정부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CLS 400 2,996cc, 1,809kg, 7G-TRONIC PLUS, 복합연비 10.0km/ℓ(도시연비 8.8km/ℓ, 고속도로연비 11.9km/ℓ), 4등급, 복합CO₂ 배출량 177g/km *CLS 63 AMG 5,461cc, 1,930kg, AMG SPEEDSHIFT MCT 7-Speed, 복합연비 7.6km/ℓ(도시연비 6.5km/ℓ, 고속도로연비 9.8km/ℓ), 5등급, 복합CO₂ 배출량 238g/km *CLS 63 AMG 4MATIC 5,461cc, 2,010kg, AMG SPEEDSHIFT MCT 7-Speed, 복합연비 7.1km/ℓ(도시연비 6.1km/ℓ, 고속도로연비 8.8km/ℓ), 5등급, 복합CO₂ 배출량 256g/km *CLS 63 AMG S 4MATIC 5,461cc, 1,995kg, AMG SPEEDSHIFT MCT 7-Speed, 복합연비 7.1km/ℓ(도시연비 6.2km/ℓ, 고속도로연비 8.6km/ℓ), 5등급, 복합CO₂ 배출량 255g/km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및 정비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